

프로축구 관중의 집합행동 사례연구

주 일 엽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폭력적 집합행동의 원인 |
| II. 이론적 배경 | V. 폭력적 집합행동의 전개과정 |
| III. 연구방법 | VI. 결론 및 제언 |

I. 서론

최근들어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대 등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반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건강유지, 친목도모 목적의 직접적인 스포츠활동 외에 관심 있는 스포츠경기 관람 등의 간접적인 스포츠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 야구 등 1980년대 이후 프로스포츠 경기의 출범 및 급성장으로 일반대중의 스포츠경기 관람기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반대중은 스포츠경기 관람을 통해 개인의 여가활용,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연대감과 소속감을 고양하기도 한다.

간접스포츠의 경우 관람자 및 응원자로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관중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관중의 건전한 관전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진행이나 결과가 그들의 기대와 현격히 차이가 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집합행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0년 이후 2000년까지 집계된 전세계 축구경기관련 주요 사건·사고 69건을 분석해 보면 1980년대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형별로 폭력·난동(31건), 압사(12건), 화재·테러(12건), 시설붕괴(8건), 판정불만(6건) 등 폭력·난동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중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국가정보원, 2002년). 각 구단별 서포터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경우도 관중들의 집단폭력 등 집합행동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단에 대한 지지자 및 후원자라고 할 수 있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과 박사과정.

는 서포터스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홀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가 서포터스를 A등급(순수응원단), B등급(상황에 따라 홀리건이 될 수 있는 사람), C등급(골수홀리건)으로 분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경찰청, 2002: 17).

스포츠경기에서의 관중폭력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박헌옥(1981), 이세일(1984)과 차현국(1986)이 집합행동 이론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인상(1999)은 국제축구대회시 홀리건 안전운영 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장영과 강효민(2000)은 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 야구 관중폭력 발생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공안기관에서 스포츠 행사 안전대책 수립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King(1999), Stott와 Reicher(1998), Williams, Dunning과 Murphy(1990) 등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선행특성이 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cPherson, Curtis와 Loy(1989)도 축구폭동 사례연구에서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된다고 강조하였다. Young(1991)은 스포츠경기시 발생하는 폭력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집합행동에 관한 국내외 관심 및 연구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스포츠경기시 발생하는 관중들의 폭력적 집합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및 이론적 검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프로축구 경기시 발생한 서포터스의 폭력사례에 대해 집합행동 관련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시 관중폭력 발생의 원인 및 통제방안을 제시, 건전한 스포츠문화 형성 및 각종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군중(crowd)을 대중(mass), 공중(public)과 최초로 구분하여 기술한 사람은 Blumer로 ① 거리의 행인과 같은 부랑군중(浮浪群衆, casual crowd), ② 운동경기 관람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통일체를 형성한 보편화된 군중(conventionalized crowd), ③ 목적을 위해 실제행동에 참여하는 폭도와 같은 행동적 군중(acting crowd), ④ 종교의식 등에 참여하는 표출적 군중(expressive crowd)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이홍탁, 1992: 625).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스포츠관중의 집합행동은 두번째 유형인 보편화된 군중이 세번째 유형인 행동적 군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관중은 대개 규칙적이고 계획된 집합체이며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집단이며 군중의 유형 가운데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집단적인 스포츠 폭력사태는 빈도와 난폭성에 있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중 폭력은 홈경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스포츠관중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집착, 극도의 경쟁상태, 선수간의 폭력행동과 적대감정, 통제조치의 비효율성과 법 집행기관의 인원부족, 편파적이고 무기력한 경기운영 등 사회적 통제기제의 단절에 기인한다(임번장, 2001: 551, 564).

군중의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전염이론, 순환반응이론, 수렴이론, 규범창출이론, 게임이론, 부가가치이론 등이 있다.

전염이론(contagion theory)은 Le Bon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군중행동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군중의 정신적 통합 법칙'(Law of Mental Unity of Crowds)이라는 개념을 사용, 다음과 같은 4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무의식적 심리가 표출되어 군중의 행동이 더 이상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조정되지 않게 된다. 둘째, 군중의 구성원들은 '암시에 걸리기 쉽게'(suggestible) 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는 모방과 전염의 단계로 전파되게 된다. 셋째, 군중의 사고는 정상적인 사고와는 달리 단순하고 근시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넷째, 지도자는 전지전능한 인물로 간주되며 군중 구성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된다(차현국, 1986: 32-33).

순환반응이론(circular reaction)은 Blumer가 Le Bon의 전염이론을 확대한 것으로 개인의 반응이 타인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재창출해 내고 타인에게 재반사하는 과정에서 자극이 강화되는 상호자극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순환반응이론에서 군중형성은 크게 4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사회적 불안하에서의 군중행동 이전에 밀고 부딪히는 상태(milling)가 있게 되는데 상호간에 마음을 빼앗김에 따라 서로 신속하고 직접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둘째, 소요과정(milling)이 더욱 강화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집합적 흥분상태(collective excitement)가 진행된다. 셋째, 이러한 흥분이 강하게 만연되는 경우에 어떤 사회전염(social contagion)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인하게 된다. 넷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군중들을 더욱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통일체로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Alfred, 1953: 171-177).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Allport가 주장한 것으로 집합행동에 참여함으로써 개개인이 무조건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평소에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실천

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즉, 집합행동에서 군중들은 결코 이성을 잃고 난폭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임이론(game theory)은 Rapoport의 이론에 따른 것으로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이성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철두철미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는 관점이다. 즉, 경제학에서 논하는 게임이론에서와 같이 개인은 보상이 항상 손실보다 클 경우에만 군중의 대열에 합세한다는 것이다 (이홍탁, 1992: 671-672).

규범창출이론(emergent norm theory)은 Turner와 Kilian이 주장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군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군중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형성하고 확인한다는 것이다. 군중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지금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즉각적인 공동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일단 정의가 내려지고 사태를 파악하게 되면, 어떠한 행위가 적합한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윤덕중, 1994: 601).

부가가치이론(value-added theory)은 Smelser가 주장한 것으로 군중행동 과정을 일련의 단계에 비유해서 파악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가능한 결과(output)들의 범주가 감소하게 되고 군중행동의 가능성은 증가하는데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박현옥, 1981: 26; 임변장, 2001: 547-548).

첫째, 구조적 요인(structural conduciveness)으로 집합행동에 필요한 사회구성의 일반적 조건에 관계되며 어떤 집합행동이 발생하기에 필요한 환경적 선행요건을 말한다. 이 요인은 특정한 집합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범주만을 설정한다.

둘째,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은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수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상태는 긴장의 원인에 집중하거나 혹은 그 긴장을 해소할 방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특정한 형태의 집합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일반화된 신념의 성숙과 파급(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으로 사회의 구조적 긴장의 모호한 상황 속에서 군중 구성원들이 그러한 긴장상태에 대한 공통적인 신념을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도 다른 필요조건과의 결합에서만 특정한 형태의 집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넷째, 촉진요인(precipitating factors)으로 실제 집합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자극시켜주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은 일반화된 신념을 구체적이고 즉각적 실체로 만들어 버린다.

다섯째,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으로 촉진제

적 사건의 발생현장에 집합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열거한 모든 결정요인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남아 있는 유일한 필요조건이 바로 이 결정요인이다. 이러한 동원화의 과정에서는 지도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섯째, 사회통제 기제(the operation of social control)는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요인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앞서 열거한 결정요인의 제 전개과정을 단절하며 저지하려는 대항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귀결된다. 사회통제 기제는 조성조건과 긴장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회통제와 집합행동이 발생하고 난 후에 동원되는 사회통제로 나뉜다.

이를 정리하면 부가가치이론은 집합행동이 발생한 장소, 시간 및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으로 특정 집합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적 결정요인들을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요인으로 점차 제한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집합행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행태나 동기를 가진 다양한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 전개되어야만 집합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염이론, 순환반응이론, 수렴이론, 게임이론 등은 집합행동의 원인이 군중 자체에 있다고 보는 반면, 규범창출이론과 부가가치이론은 집합행동의 원인이 군중이 소속한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프로축구 관중의 집합행동에 관한 해석적 사례연구로 2001년 6월 24일 수원경기장에서 개최된 프로축구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간의 경기에서 발생한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경기장내 소란행위와 2001년 7월 28일 수원경기장내 및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와 수원삼성 서포터스 상호간에 발생한 폭력사태를 그 대상으로 부가가치이론을 통해 원인, 전개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2001년 6월 24일과 7월 28일 등 2회에 걸쳐 발생한 사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번째 사건이 두번째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상호관련이 있고 7월 28일 발생한 사건은 그 폭력 정도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의 홀리건 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는 <표2-1>과 같다.

<표2-1> 연구대상 집합행동 사건개요

구 분	사 건 개 요
6월 24일 사례	2001.6.24 수원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수원삼성 대 대전 시티즌간 경기시 심판의 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전 시티즌 서포터스들이 격분한 상태에서 그라운드에 난입, 심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한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이들을 그라운드 밖으로 내몰자 이때까지 관중석을 지키던 다른 팬들이 그라운드로 달려들어 결국 경기장 질서를 지키던 경찰이 동원되어서야 나머지 경기가 진행되었다.
7월 28일 사례	2001.7.28 수원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수원삼성 대 대전 시티즌간 경기시 수원삼성 서포터스들이 6.24 경기당시 대전 시티즌 서포터스가 경기장에 난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 시티즌 서포터스 응원석을 미리 선점한 것이 시비가 되어 관중석에서 서포터스간 1차 몸싸움후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들이 주차장에서 경기종료후 귀가하는 수원삼성 서포터스에 투석, 폭력 및 차량 손괴행위를 한 사건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개요, 원인 및 전개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1

년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국내발행 정기간행물 14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포츠전문지로는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 등 4종이며 종합일간지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10종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자료검색의 효율성,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의 국내언론검색서비스인 KINDS 서비스와 PC통신 천리안의 언론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원삼성 및 대전시티즌 프로축구 구단의 활동상과 양 팀간의 역대 경기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IV. 폭력적 집합행동의 원인

일반적으로 관중폭동을 유발하는 경우의 이면에는 평상적인 관중을 자극하여 공격적 감정을 유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군중효과, 선수행동, 경기결과 등 세가지 요인이 제시된다(임번장, 2001: 563-564).

본 연구의 사례중 하나인 2001년 6월 24일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과의 프로축구경기는 심판이 오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중의 오해가 있었고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어 역전하는 결과를 보이자 집단의사를 폭력행동으로 표시한 사례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군중효과를 들 수 있는데 관중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란, 구호, 신체적 접촉 등과 같은 군중효과의 요인들이 관중을 흥분시키고 공격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2001년 6월 24일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과의 경기에서 폭력행위의 주된 주체는 수원삼성 및 대전시티즌의 서포터스였다. 이들은 각 팀의 열렬한 팬으로서 개인적 행동특성보다는 각 팀을 응원하는 긴장된 다수의 군중 속에서 개인이 몰입된 집합행동 양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대전시티즌 서포터스가 심판의 오심 정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삼성이 패널티킥을 성공시키자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는 소란과 함께 '퇴장당한 선수가 왜 경기에 참여하는가'라는 격한 구호를 외치게 되었고 이어 경기장 난입이라는 폭력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일간스포츠, 2001.6.24).

둘째, 선수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공격행동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관중난동의 3/4이 선수의 적대적인 반칙이나 공격행동이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6월 24일 경기에서 2-2로 비기고 있던 후반 45분경 수원삼성의 데니스가 대전시티즌 수비수 콜리의 반칙을 유도해 프리킥을 얻었고 쓰러져 있는 콜리를 수원삼성 수비수 줄리가 다가가 일으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주심은 콜리에게 레드카드를

뺨아 들었고 줄리에게는 이미 하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잇따라 내보이며 퇴장을 선언했는데 이에 줄리가 항의했고 수원의 피경고자가 줄리가 아닌 것을 확인한 주심은 레드카드를 취소한 채 경기를 속행시켰다(스포츠조선, 2001.6.25). 이러한 반칙행위와 심판의 오심이 관중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반칙행위는 관중의 폭력행위를 유도하는 하나의 유발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기의 결과(승리/패배)가 관중의 집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등한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패배에 의해 공격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도 2-2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가 수원삼성의 막판 페널티킥 성공으로 역전패를 당하자 흥분하여 경기결과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중국에는 폭력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이상과 같이 스포츠경기 관중의 집합행동은 몇가지 요인에 의해 살펴 볼 수 있으나 사회학 및 심리학적 제 요인들로 집합행동을 설명하려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종목들의 특성상 참여관중은 서로 다른 유형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행동이 일관되게 표출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행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위해서는 구조적 결정요인들이 특정한 형태의 집합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유한 방식에 의해 조직화되고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V. 폭력적 집합행동의 전개과정

1. 2001년 6월 24일 발생 집합행동

2001년 6월 24일 수원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정규리그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과의 경기시 발생한 집합행동을 부가가치이론에 입각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 구조적 요인으로 어떤 집합행동이 발생하기에 필요한 환경적 선행요건을 말하는데 당시 프로축구 정규리그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축구전문가들의 정규리그 예상판도는 '4강 4중 2약'으로 나타났는데 수원삼성, 안양LG, 성남일화, 부산이 4강 구도를 이루고, 전북현대, 부천SK, 포항, 전남은 4중, 대전시티즌, 울산현대는 2약으로 나뉘는 양상으로 수원삼성의 경우 2001년 아시안클럽선수권과 정규리그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아시아 제패에다 아디다스컵까지 우승해 자신감이 높은 상태에

서 정규리그까지 석권하겠다는 야망이 있었다(일간스포츠, 2001.6.12; 스포츠서울, 2001.6.12; 스포츠서울, 2001.6.14).

대전시티즌도 정규리그가 연장전과 승부차기 없이 90분 경기로만 승부를 가리도록 규정되어 강팀과 비겨 안전 운행하려는 팀이 많이 나오고 원정팀이 무승부로 승점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예상되어 여느 해보다 판도를 바꿀 변수가 많았으며 대전시티즌은 부상선수들이 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정규리그에 거는 기대가 컸으며 소속 스트라이커들이 함께 발을 맞추고 있어 사기가 높았다(스포츠서울, 2001.6.12; 스포츠서울, 2001.6.14).

두번째 단계, 구조적 긴장으로 환경적 요인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수용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 프로축구 운영에 따른 지역간 경쟁의식이 내재해 있었다.

수원삼성은 1995년 창단, 세계 속의 선진축구클럽을 표방, 지난 1996년 프로축구리그 참가이래 8차례나 정상에 올랐고 1999년 4관왕, 2001년 아디다스컵과 아시아클럽선수권을 석권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등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또한, 1997년 창단한 대전시티즌과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역대 경기결과 13승 3무 2패를 기록,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대한민국축구포탈 SOCCERO, 2002; 삼성블루윙스 프로축구단, 2002; 스포츠서울, 2001.6.14).

반면, 향토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철저한 지역연고를 강조하고 있던 대전시티즌은 프로축구 10번째 구단으로서 비록 객관적인 전력은 뒤지지만 정규리그에 대비해 선수들이 4-3-3 포메이션에 적응했고 골 결정력도 크게 향상되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면 정상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2002; 스포츠서울, 2001.6.14).

세번째 단계, 일반화된 신념의 성숙과 파급으로 사회구조적 긴장상황 속에서 군중들이 그러한 긴장상태에 대해 공통된 신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소 전적이 부진한 대전시티즌이 힘겹게 2-2 대등한 분위기를 만든 점이나 월등히 우수한 전적을 가진 수원삼성이 앞서 가던 중 2-2의 동점이 되었을 때 각팀 모두 높은 정도의 긴장과 갈등상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언론도 전반 13분 대전시티즌에게 선제골을 허용, 끌려 다니던 수원삼성이 후반 4분 만회골과 23분 헤딩슛 성공으로 2-1로 앞서 나가고 이에 대전이 후반 35분 헤딩슛을 성공,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경기종료 직전, 수원삼성이 프리킥을 성공시켜 1승을 거두었다고 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대한매일, 2001.6.25).

네번째 단계, 촉진요인으로 집합행동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자극시켜 주는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심의 오심과 수원삼성의 패널티킥 성공이 그 예이다.

수원삼성의 졸리에 대한 퇴장명령이 착오임을 깨달은 주심은 레드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를 속행하였으나 이런 과정이 관중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대전시티즌 서포터스가 이를 오해, 긴장이 고조되어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국민일보, 2001.6.24). 또한, 2-2 동점까지 간 상황에서 후반 수원삼성의 패널티킥 성공은 수원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경우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는 사이 반칙으로 얻는 프리킥이 결승골로 연결되어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좌절심리요인이 극대화되면서 불만표시를 위한 집합행동을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국민일보, 2001.6.25; 세계일보, 2001.6.27).

다섯번째 단계,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으로 촉진제적 사건의 발생현장에 집합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전시티즌 일부 서포터스가 퇴장명령을 받은 수원삼성 선수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골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장에 난입하였고 이어 다른 서포터스들도 동참하게 되었다.

사실, 멀리서 지켜보던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는 주심이 홈팀 수원삼성에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계속 경기에 임하는가”, “퇴장해야 하는 졸리가 뛰는 상태에서 넣은 골이므로 무효이다”를 주장하며 그라운드로 난입하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2001.6.25; 대한매일, 2001.6.25; 세계일보, 2001.6.27).

여섯번째 단계, 사회통제 기제로 적대적 감정폭발의 경우 대응세력의 개입을 의미하는데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책임이 있는 경찰과 수원삼성구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사회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그라운드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일련의 폭력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진압 및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진행요원의 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흥분한 관중들의 주심에 대한 가해시도는 경찰이 아닌 대전시티즌 선수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한참후에 출동한 경찰의 진압으로 자진 해산되었지만 더 심각한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대한매일, 2001.6.25; 스포츠조선, 2001.6.26; 중앙일보, 2001.6.25).

2. 2001년 7월 28일 발생 집합행동

이어서, 2001년 7월 28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정규리그 수원삼성 대 대전시티즌간의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폭력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단계, 구조적 요인으로 수원삼성 대 대전시티즌과의 경기란 점에서 앞서 언급한 6월 24일 당시의 구조적 요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단계, 구조적 긴장으로 수원삼성의 경우 6월 24일 경기결과 전적에 1승을 더하였으나 갈등관계나 경쟁의식은 앞서의 경기로 인해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심화된 상태였다. 당시 언론도 7월 28일 발생한 폭력사태는 지난 6월 24일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경기장 소란행위이후 양측간의 악화된 감정이 발단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한국일보, 2001.8.18).

세번째 단계, 일반화된 신념의 성숙과 파급으로 수원삼성 서포터스의 경우 1승에도 불구하고 대전시티즌 서포터스가 경기이후 인터넷이나 축구연맹에 제기한 판정시비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6월 24일 경기시 보인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긴장된 상황으로서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일간스포츠, 2001.6.26, 2001.7.29; 경향신문, 2001.7.30). 수원삼성 서포터스는 대전시티즌 서포터스가 사과를 하지 않자 상대 응원석을 점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도 6월 24일의 경기와 관련해 상대방 서포터스에 대한 불만을 표지, 쇠파이프를 미리 감추어 경기장에 입장한 것은 당시 내재된 긴장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일간스포츠, 2001.7.29; 스포츠조선, 2001.7.30).

네번째 단계, 집합행동을 발생시키는 촉진요인의 경우 7월 28일 경기에서는 앞서의 6월 24일 경기보다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6월 24일 사례의 경우 선수, 주심 등 경기주체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기객체(관중)의 흥분된 감정이 폭력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7월 28일 경기에서는 경기객체(관중)의 감정적인 의사표현이 촉발요인이 되고 이어서 폭력행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사과를 받지 못한 수원삼성 서포터스는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에 대한 편의제공 거부와 대전시티즌 서포터스 측 응원석을 점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흥분한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도 감추어 가지고 온 쇠파이프를 보이며 대항하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한국일보, 2001.8.18; 경향신문, 2001.7.30; 일간스포츠, 2001.7.29).

다섯번째 단계, 동원화로 일단 진정된 서포터스간의 대립이 장외로 연결되어 더욱 폭력적이고 심각하게 발전된 것은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행동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응원도구에 쇠파이프를 미리 감추어 가지고 온 주도면밀한 점과 경기장에 쇠파이프를 반입했다는 폭력의도가 수원삼성 서포터스를 자극시켰고 경기후 장외에서 이동시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욕설 및 협박이 다시 집단폭력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전시티즌 서포터스는 경기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쇠파이프 30여개를 갖대

속에 감추어 갖고 들어올 만큼 치밀한 준비가 돼 있었고 경기종료후 경기장을 빠져 나오며 수원삼성 서포터스를 향해 욕설과 함께 “대전에서 보자”는 협박을 일삼았다(일간스포츠, 2001.7.29) 대전시티즌 서포터스 100여명은 주차장에서 수원삼성 서포터스 회원 20여명과 패싸움 전개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쇠파이프를 들고 소동을 부렸으며 30여분간의 충돌과정에서 승용차 1대가 파손되고 10여명이 부상하는 등 무법천지로 만들었다(스포츠조선, 2001.7.30; 일간스포츠 2001.7.29).

여섯번째 단계, 사회적 통제의 경우 지난 경기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구단 관계자의 방관과 경찰의 통제미숙 및 과잉대응으로 진압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서포터스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스포츠투데이, 2001.7.29; 일간스포츠, 2001.8.17).

대전시티즌 구단은 수원삼성 서포터스측의 대전시티즌 서포터스 응원차단 정보를 사전 입수했고 소속 서포터스의 수원경기장 이동시 쇠파이프 30여개 소지사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경기장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때도 이를 압수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 사건 발생시에도 오히려 서포터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등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일간스포츠, 2001.7.29; 스포츠투데이, 2001.7.29). 또한, 경기장 안전유지 책임이 있는 홈팀 수원삼정도 비록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자체 경비단을 투입했지만 폭력을 원천 봉쇄하는데는 실패하는 등 경기장 폭력 사태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일간스포츠, 2001.7.29).

당시 경찰에서는 지난 6월 24일 사건 이후 양측의 긴장감을 예견, 수원중부경찰서 3개 중대, 수원북부경찰서 1개 중대 등을 미리 배치했으나 양측 서포터스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의 홀리건들과 유사한 폭력을 자행하는 등 경기이후 양측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일간스포츠, 2001.7.29; 스포츠투데이, 2001.7.29; 스포츠조선, 2001.7.30). 이는 사회통제 기능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폭력행동을 어떻게 원활히 예방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진행되는가와 더욱 심한 폭력적 사태로 진전될 수 있는 과잉통제의 문제점도 제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사례비교

이상과 같이 2001년 6월 24일과 7월 28일 프로축구 경주시 2회에 걸쳐 발생한 관중의 폭력적 집합행동 사례를 부가가치이론을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관중의 폭력적 집합행동에는

다양한 사전 필요요건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계기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 폭력성은 덜하였으나 관중의 태도가 환경적 요인과 인과관계에 의해 어떠한 단계로 발전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이미 원인이 내재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홀리건 사건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폭력성을 보여준 점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통제부분의 미비점을 제고케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두 사례를 <표4-1>에 비교, 정리하였다.

<표4-1> 프로축구 집합행동 사례비교

구 분	6월 24일 사례	7월 28일 사례
구조적 요인	축구경기가 수원·대전 양팀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 - 수원 : 각종 대회 우승으로 종합제패 달성 의지 - 대전 : 조직 내실화로 우승 기대감 고조	좌 동
구조적 긴장	연고위주의 프로축구에 따른 지역간 경쟁의식 팽배 - 수원: 지역최고라는 자부심과 대전에 비해 우월한 실력보유 - 대전: 지역연고 우선정책과 경기최선 경주, 정상 모색	지난 경기가 양팀 모두 불패한 상황으로 기억, 경쟁의식 및 불신감 지속 - 수원: 이겼지만 판정시비로 인해 경기승리 다짐 - 대전: 설욕전의 의미
일반화된 신념의 성숙과 파급	2-2 동점상황이 양팀 모두 이겨야 한다는 긴장감 형성	과거경기 및 상대편에 대한 불신 지속 - 수원: 정당한 승리 쟁취 - 대전: 과거패배와 원정경기에 대한 피해의식 내재
촉진요인	주심의 오심과 수원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인한 대전 서포터스의 흥분	수원 서포터스의 대전 서포터스 응원석 사전 점거 및 사과요구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	대전 서포터스의 그라운드 난입	대전 서포터스의 쇠파이프 소지 및 폭력행동에 대한 수원 서포터스의 맞대응이 집단 행동으로 발전
사회통제 기제	경찰의 지연대응 및 단순진압	경찰 사전통제 및 구단측 대비 미흡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로축구 관중의 폭력적 집합행동에 관한 사례연구로 지난 2001년 6월 24일 및 7월 28일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 프로축구 정규리그 경기 진행시 2회에 걸쳐 발생한 집합행동의 원인 및 전개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당시 관중의 폭력적 집합행동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관중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란, 구호, 신체적 접촉 등과 같은 군중효과의 요인들이 관중을 흥분시키고 공격행동을 촉발하는 만큼, 서포터스는 개인적 행동특성보다는 각 팀을 응원하는 긴장된 군중 속에서 개인이 몰입된 집합행동 양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선수 및 심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공격행동 요인으로 당시 선수의 반칙행위와 심판의 오심이 군중들의 폭력행위를 유도하는 하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기의 결과(승리/패배)가 관중의 집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대등한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패배 등 경기결과에 의해 관중의 공격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이어서 프로축구 경기시 나타난 서포터스의 집합행동 전개과정을 부가가치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1년 6월 24일 발생 집합행동 사례의 경우, 첫번째 단계로 프로축구 정규리그 우승을 기대하는 양팀 모두에게 당시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두번째 단계로 지역경쟁 의식이 팽배했다. 세번째 단계로 동점상황에서 양팀의 긴장감이 증가했고 네번째 단계에서는 주심의 오판과 패널티킥 성공으로 상대관중이 흥분하게 되었으며 다섯번째 단계에서 관중의 그라운드 난입이 있었다. 여섯번째 단계에서는 경찰의 지연대응 및 단순진압으로 사회통제 기제가 지연되었다.

2001년 7월 28일 발생 집합행동 사례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6월 24일 사례와 동일한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고 두번째 단계에서 과거사건이 양팀 모두에게 불쾌하게 인식되었다. 세번째 단계로 과거 경기 및 상대에 대한 상반된 믿음이 지속되었고 네번째 단계에서 홈팀 서포터스의 사과요구 및 응원석 점거로 상대팀 서포터스의 감정이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단계에서 경기장내 갈등표출과 대전시티즌 서포터스의 쇠파이프 사용 및 위협이 집합행동으로 비화되었고, 여섯번째 단계에서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측의 대비 및 경찰의 사전통제가 미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축구 관중의 폭력적 집합행동에는 다양한 사전 필요조건이 존재하고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특정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하나의 집합행동이

추후에 발생하는 집합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스포츠관중의 집합행동이 발생하고 전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전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폭력적인 집합행동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월드컵대회시 '붉은 악마'의 건전하고 조직적인 응원 전개이후 국민들의 긍정적인 스포츠 관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다양한 집합행동 촉발요인에 따른 관중의 폭력행동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경주 및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축구·야구 등 관중스포츠 경기 개최시 주최측, 경찰 등 안전관리 주체는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 관중, 경기진행요원 등 경기참여요소들의 경기에 대한 관심정도 및 긴장요소를 파악하여 경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장 중요취약 요소에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로 질서유지, 참가선수단 신변보호, 응원단간 충돌방지, 주류·폭죽·폭음탄 등 위험물질 반입차단, 압포상·잡상인 등에 대한 강력단속, 경기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강구, 우발사태 및 테러대책 철저 등의 안전관리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 진행, 종료 및 해산시는 경기참여요소 상호간의 갈등진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합행동 촉발요인 발생시 안내 또는 경고방송, 경기중단, 경력투입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촉발요인을 중도에 차단함으로써 후속단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2). 「2002월드컵대회 홀리건 안전대책」. 서울: 범신사.
- 국가정보원.(2002). 월드컵안전대책 홈페이지(www.nis.go.kr).
- 대전시티즌.(2002).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홈페이지(www.tcfc.co.kr).
- 대한민국축구포탈 SOCCERO.(2002). SOCCERO 홈페이지(www.soccero.com).
- 박헌욱.(1981). 「스멜서의 집합행동 이론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 이세일.(1984). 「집합행동의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 삼성블루윙스.(2002). 삼성블루윙스 프로축구단 홈페이지(www.samsungbluwings.co.kr).
- 윤덕중.(1994). 「현대사회학」. 서울: 형설출판사.
- 이장영·강호민.(2000). 집합행동으로서 경기장 관중폭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제13권 제2호: 333-344.
- 이인상.(1999).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 이홍탁.(1992). 「사회학원론」. 서울: 법문사.
- 임병장.(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차현국.(1986). 「군집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Alfred M. Lee. (1953).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 Noble.
- Blumer, H.(1969).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Barnes and Noble.
- King, A. (1999). Football hooliganism and the practical paradim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6(3):269-273.
- Le Bon. (1960). *The Crowd*. New York: Viking.
- Mcpherson, B. D., Curtis, J., & Loy, J. W. (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An introduce to the sociology of sport*. IL: Human Kinetics.
- SIRC. (1996). *Violence in Europe*. London: Oxford.
- Smelser, N. J.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 Smith, M. (1983). *Violence and Sport*. Toronto: Butterworths.
- Solan, L. R. (1989). *The motive of sports fans*. NJ: lawrence er/baum Associates.
- Stott, C., & Reicher, S. (1998). Hoe conflict escalates: The inter-group dynamics of

collective crowd violence. *Sociology*. 32:353-377.

Williams, J., Dunning, E., & Murphy, P. (1990). *Hooliganism aboard*. London: Routledge.

Young, K. (1991). *Sport and collective violence*.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Zillman, D, Bryant, J., Sapolsky, B. S. (1989). *Enjoyment from sport spectatorship*. N.J:

lawrence er/baum Associates.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of Professional soccer games

by Joo, Il-Yeob

This is a case study on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and the processes of the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ll, I analyzed two cases of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in spectators of professional soccer games that were held on June 24 and July 28 in 2001.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4 kinds of daily newspapers from June 10 to August 20 in 2001 to maintain the objective validity of the outline, the reasons, and the processes of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two ca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KINDS) of Korea Press Foundation, and Chollian, on-line service of DACOM, for its efficiency, accuracy and promptness.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method as well as the consequences of data analysis, I've reached to a conclusion as follows.

The reasons of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were the mass effect, the activities of players, umpires and the results of games, etc.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need pre-requirements and have relationships with special affairs that are developed in a regular sequence. In other words, a collective activity gives an effect on another one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we can reduce or prevent the damages by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sport games when we analyze the processes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make a previous counter-measure for that.